

해남형 위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리모델링 제안공모 발표 심사

심사평

순위	참가번호	심사평
1위	32	기존 건축물 리노베이션이라는 접근방식에서 다른 제출안들과 차이를 보여준 것에 높은 평가를 받은 제안입니다. 공적 영역과 투숙객 영역을 구분한 방식도 설득력 있었습니다. 발주처와 잘 협의하여 제한된 공사비에서 효율적인 계획을 하여 매력적인 공간을 완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위	72	기존 건축물을 면밀히 분석해서 모든 공간과 입면, 매스를 다루는 방식에서 탁월한 제안이었습니다. 대상지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매력적이었지만, 효율적인 공사방식이나 모든 이야기를 한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제안이었으면 더 설득력 있었을 것 같습니다.
3위	65	공용 공간의 섬세한 컨트롤과 저층부의 합리적인 레이아웃이 돋보였습니다. 중간중간의 포켓 공간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형식을 바꾼 제안이 좀 더 설득력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4위	73	명쾌한 분석에 의한 평면과 잘 컨트롤된 내부공간이 일관성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리노베이션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정리된 상황들이 단점이었습니다.
5위	87	건축의 영역보다 넓은 기획의 영역에서의 제안이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기획에서 고만한 내용이 건축까지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2024. 12. 05.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심사위원

최진석



해남형 위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리모델링 제안공모 발표 심사

심사평

순위	참가번호	심사평
1위	32	<p>-리모델링으로써 기존건축물의 주요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변화되는 부분과의 조화를 시도한 훌륭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p> <p>-제안공모로써 자유로운 창의적 제안을 통해 건축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주어진 사업예산을 고려하면서 자신만의 개념을 적절히 제시한 점도 향후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p> <p>-1층의 커뮤니티 아케이드는 그 개념을 잘 발전시켜서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과 '남해바다'를 연결하는 특별한 여정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p> <p>-1층은 테마촌과 바다를 개방적으로 연결할 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과정을 통해 단절의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해석해서 일부 지원 시설공간을 재 배치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p>
2위	72	<p>-기존건축물의 공간구조를 리모델링을 통해 개방적이고, 새로운 표정으로 잘 구성한 제안입니다. 건축가 개인의 포트폴리오 작품만 보더라도 완성도 있는 건축공간을 창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p> <p>-위케이션 공간으로써도 세부공간계획이 기능적이고 유용해 보입니다.</p> <p>-다만, 기존 건축물의 현황(구조, 형상 등 종합적인 내용)과 사업비등을 고려했을때 리모델링의 적정범위가 어떤 정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깊었습니다.</p>

3위

65

-기존 건축물의 배치 구조 등을 잘 재해석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는 내부공간과 외형의 새로운 모습을 잘 제안한 계획입니다.
-북쪽 공원에 면한 열린 테라스 및 남쪽 바다를 향한 원형의 알코브(alcove)형 테라스는 흥미로운 공간요소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지붕까지 전체 공간을 연계한 측면이 완성도가 있기도 하지만 입지적 성격상 건축이 다소 완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개인적으로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고려 및 리모델링으로써 기존건축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축에 가깝게 설계되어 제안공모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심사위원으로써 매우 고민되는 지점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위

73

-기존 건축공간에서 추출된 듯한 삼각형의 개념으로 건축공간과 대지의 컨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새로운 제안을 시도한 점이 인상적인 계획안입니다.
-경험적 측면에서 내부공간을 세밀하게 제안한점도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공모가 신축의 방향이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기존건축물이 상당한 규모로 축조되어 있고, 구조적 제한도 있는 측면을 고려했을때 제시된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겠다는 아쉬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위

87

-기존 건축물을 외형적으로는 유지하면서 내부공간 위주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맞게 제안한 현실적인 계획안으로 읽혀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한 측면이 공감이 갑니다.
-그에 따라 제안내용이 다소 기존 공간에서 변화를 최소화한 계획안으로 정리된 측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워케이션 공간으로써의 제안은 변별성 또는 개념성이 있어야 했고, 외관의 모습 또한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제시 되었어야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24. 12. 05.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심사위원

김성우

김(현)우

해남형 위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리모델링 제안공모 발표 심사

심사평

순위	참가번호	심사평
1위	32	<p>1. 스테이 숙박 기능과 위케이션 업무 기능의 분리 제안이 합리적입니다.</p> <p>2. 기존의 동근 지붕과 증축 볼륨의 관계를 분절과 조화를 이루어낸 아이디어가 매우 돋보입니다.</p> <p>3. 주어진 예산 범위안에서 효과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제안은 경제성을 넘어 내부 공간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리모델링 전략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p> <p>4. 위케이션 업무공간이 해송 군락의 경관과 함께 비일상적인 업무공간의 퀄리티와 분위기를, 2층 베란다(활동공간)의 사용성도 기대되는 제안입니다.</p> <p>5. 본 공모는 제안공모로, 제안자의 역량과 무엇보다도 기존 건축물을 재해석하고 리모델링의 기본 방향과 컨셉을 세우는 태도와 내용이 매우 탁월합니다.</p>
2위	72	<p>1. 이용자의 바람과 기대를 갖게하는 매우 매력적인 건축 디자인입니다.</p> <p>2. 세밀한 공간계획은 평면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당한 퀄리티를 이미 확보한 제안입니다.</p> <p>3. 침실을 복층화한 객실 유형 제안 또한 위케이션의 기능에 매우 타당한 유형이라고 판단됩니다.</p> <p>4. 기존 건축물의 재해석과 유형적 잠재력보다 큰 변화를 모색한 내용적 퀄리티는 이해하나,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인 기대와 저예산에 따른 경제성 구현의 목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p>
3위	65	<p>1. 1층과 2층을 통합하여 제안한 큰 아트리움은 아트리움 유형이 갖는 가능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본 프로젝트의 적용에 있어 투입 예산 대비 기대 효과는 의문스럽습니다.</p> <p>2. 아트리움을 제외한 공간들의 내부 퀄리티는 외관의 큰 변화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p>

4위

73

1. 기존 건축물을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두개의 삼각형 볼륨에 대한 제안은 매우 탁월한 컨셉으로 그 실현을 기대하게 합니다.
2. 객실에 대한 제안은 워케이션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공간 형식과 외부 경관을 활용한 내부 공간의 퀄리티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3. 그 외의 제안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과도하여, 프로젝트의 균형감을 확보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자의 역량을 보고 설계자를 정하는 제안공모임을 감안하여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였으나, 프로젝트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우수함을 인정합니다.

5위

87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재해석을 바탕으로 제안한 객실 외부의 벽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객실 공간의 깊이감을 키워 외부 경관에 대한 on site view의 퀄리티가 매우 기대되는 아이디어입니다.
2. 객실의 타입이 다양하지 않고, 공간적 특성이 상당하지 않은 제안이 경제성은 갖겠으나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 12. 06.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심사위원

최영준



해남형 위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리모델링 제안공모 발표 심사

심사평

순위	참가번호	심사평
1위	32	<p>이번 해남형 위케이션센터 조성사업 공모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참가번호 32번 작품은 기존 건축물의 정체성과 특성을 존중하며, 해남 지역의 자연환경 및 공간적 특색을 창의적으로 반영한 리모델링 설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용부를 서측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기존 건축물과 자연 환경 간의 조화를 세심하게 고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p> <p>이 작품은 위케이션 공간이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 즉 일과 휴식의 균형을 설계에 성공적으로 녹여냈습니다. 자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조경 계획과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 배치, 객실의 구성은 해남 지역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공공성과 프라이버시를 균형 있게 조화한 설계 접근이 위케이션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p> <p>또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요소와 지역 주민 및 방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현대적 감각으로 실려내어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안했으며, 자연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 구성은 해남이 가진 매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p> <p>결론적으로, 본 작품은 해남형 위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뛰어난 사례로 평가되며, 해남의 지역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위케이션 공간의 비전을 제시한 점에서 매우 우수한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업 예산 안에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 최적합한 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p>

2위

72

72번 안은 해남형 위케이션센터 조성사업 공모전에서 2등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평면계획에서 3차원적인 조형성, 객실 유닛 구성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끝까지 고민을 이끈 안이었습니다. 특히 공간 구성의 체계적인 접근과 세심한 디테일은 위케이션 공간의 본질을 충실히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객실 유닛의 구성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위케이션 참여자들에게 최적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간의 조화로운 배치 역시 매우 우수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현대적이면서도 해남 지역의 자연적 맥락을 잘 반영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글로벌 위케이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심사위원 논의 과정에서 사업비 내에서 구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안에서의 변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최종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작품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설계의 완성도는 여전히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2등안이 되었지만 이 작품은 공간 구성과 객실 유닛 설계에 담긴 창의적 접근에 대한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어서 향후 완성되는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위

65

이번 65번 작품은 해남형 위케이션센터 조성사업 공모전에서 3등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존 건축물의 맥락보다는 새로운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설계안을 제안한 점에서, 1등안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창의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해남 지역의 기존 건축물 및 환경적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객실 타입은 전반적으로 위케이션센터의 고유한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일반적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사용자 경험과 공간 활용 면에서 특별함을 강조하지 못한 점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시각적 연결 및 개방감 있는 구조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디자인 자체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구성을 보여주며, 주변 환경과의 통합보다는 독립적인 건축적 조형미를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부 심사위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재해석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역적 맥락과 공모전의 취지에 맞춘 설계 의도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작품은 해남형 위케이션센터 조성사업의 창의적 시도를 보여주는 설계안 중 하나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대적 접근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위

73

73번 안은 해남형 위케이션센터 조성사업 공모전에서 4등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두개의 삼각형을 프레임해서 넣는 공간 활용 면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객실 디자인에서 프레임팅한 차경(窓簾)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사용자에게 주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위케이션센터의 힐링과 재충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적 접근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남 지역의 특성과 기존 건축 자산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리모델링 방향성을 요구했던 공모전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과도한 공사비가 예상되는 설계안으로 인해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객실 공간에서 다양한 차경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창의적인 디자인 접근과 공용공간에 자연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통합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87번 안은 해남형 위케이션센터 조성사업 공모전에서 5등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능적인 공간 배치와 단순한 설계 접근을 보여주었으나, 위케이션센터의 독창성과 장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5위

87

객실 배치를 1층에 집중한 구성은 사용자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한 의도가 엿보였으나, 공간 활용 면에서는 객실 등에서 단조로운 평면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층 역시 특별한 차별성을 제공하지 못한 채, 공간적 매력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위케이션센터라는 목적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공간 구성의 부재는 본 설계안의 한계로 꼽혔습니다.

이 설계는 기본적인 기능성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해남 지역의 자연 환경과 기존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맥락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객실 유닛 설계는 위케이션 공간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보다는 호텔 평면과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위케이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경험을 제안하는 데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계획 전반적으로 위케이션센터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였습니다.

2024. 12. 06.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심사위원

이상묵

해남형 위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리모델링 제안공모 발표 심사

심사평

순위	참가번호	심사평
1위	32	<p>당선작은 기존 건축물을 존중하고 새로운 공공 영역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아냈다. 기존 2011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정된 예산 안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서측 바다를 향한 새로운 볼륨을 추가하고, 공공 프로그램과 경관 축을 도입하여 방문객과 지역 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을 계획하였다.</p> <p>다만, 당선작이 가진 몇 가지 한계점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p> <p>첫째, 기존 건축물의 존치와 최소 수선을 강조한 점은 경제적 제약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으로 보이나, 이는 리모델링 계획이 혁신적 공간으로 도약하기보다는 단순 유지·보수의 수준에 머물게 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과연 이러한 접근이 황토나라 테마촌의 정체성과 지역적 맥락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p>둘째, 새롭게 추가된 서측 볼륨과 캐노피 구조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가벼운 목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정기적인 내구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해안 지역 특유의 기후 조건을 고려했을 때 목구조의 실용성과 적합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p> <p>당선작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의 제약 안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혁신적 시각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위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적 정체성을 충분히 구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당선작이 해남형 위케이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구현 단계에서 검증될 수 있기를 바란다.</p>

2위

72

이번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이 1등안과 2등안을 두고 주로 고민했던 지점은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을 어디까지 보존하고,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적 태도에 있었다. 2등안은 기존 건축물이 가진 물리적 틀을 넘어서, 공간의 맥락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기존 건축물의 폐쇄적 내부 구조와 자연경관의 단절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어와 실 배치를 재구성하며 자연경관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특히 송호리 바다를 활용한 공간 구성과 새로운 위케이션 센터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건축물의 물리적 형태를 크게 변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절충적 접근이라고 보여졌다.

3위

65

3등안은 위케이션의 본질을 '업무 속 휴식의 공존'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일상 속 자연의 공존'이라는 경험적 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를 건축적 공간에 구현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객실과 공용공간 사이 쉼의 공간은 자연을 품어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특히 매스와 매스 사이, 객실과 객실 사이의 공간이 단순한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연결을 위한 공간으로 작동하게 설계된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제안된 프로그램 중 '소통형 객실'과 '힐링형 객실'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단순히 객실의 조망 방향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을 뿐, 두 유형 간의 실질적 차별성이나 프로그램적 기능이 설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자연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위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적 요구를 더 심화시키는 설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4위

73

4등안은 해남 뽕밭마을의 풍경 요소를 건축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일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특히, 두 개의 삼각형 볼륨을 기존 건축물에 삽입함으로써 바다와 육지라는 상반된 요소를 연결하고, 조망과 이용성을 조화롭게 엮으려는 설계적 접근이 흥미롭다. 그러나 매스 구성의 복잡성과 코어 간 연결 동선의 효율성 문제는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두 개의 삼각형 볼륨이 각각 북측과 남측의 조망과 기능적 요구를 해결하고자 계획되었으나, 이 볼륨이 실제 공간 사용성과 경험에 얼마나 큰 차별화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위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적 요구를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설계적 접근이 보완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5위

87

5등안은 예산의 제약과 기존 시설의 맥락을 존중하는 대수선 계획을 바탕으로, 실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를 제안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동일 마감재를 활용하여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객실의 다양성과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작업 공간에 대한 설계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객실의 유형화와 작업 공간의 세부적인 설계가 보완된다면, 워케이션 센터의 본질적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12. 06.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심사위원

박수정

